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 방안과 고려사항

정원석 연구위원

김중석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기간 연장, 현재 200만 원인 비과세 혜택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 그리고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ISA 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고소득층 및 자산가의 ISA 가입 유인을 강화하여 이들 계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ISA 도입 목적이 전 국민의 재산증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가입대상 확대의 초점을 중산층으로 전환하여 동 계층에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확대를 위해 60세 이상은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sup>1)</sup>

- 개정안은 현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sup>2)</sup>되어 있는 ISA의 가입요건에 이러한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의 ISA 가입을 허용하였음.
- 또한, 개정안은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가입기간을 조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과세 혜택한도 역시 현재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1) 김중석 의원 등 13인 발의(2016. 12.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04089호.

2) ISA의 도입취지가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증여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자를 한정함. 또한 ISA가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인 것을 막기 위해 직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역시 ISA 가입을 제한함.

〈표 1〉 ISA 관련 조특법 기존법과 개정안 비교

구분		기존	개정안
가입 자격	소득 기준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단, 60세 이상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가입가능)
	자산 기준	- 직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	- 직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가입기간		- 5년	- 기본 5년, 조건에 따라 연장가능
비과세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주: 가입자격은 소득 및 자산 기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함.

#### ■ ISA 대상자 및 세제혜택 확대 추진의 배경은 ISA의 신규가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6년 3월 120만 명이던 ISA 신규 가입자 수는 9월 현재 5,886명으로 급감하였고 신규가입액 역시 같은 기간 동안 6,605억 원에서 1,691억 원으로 급감하였음.<sup>3)</sup>
  - 반면, ISA 도입 1개월 차에 약 5,000계좌에 불과했던 해지 계좌 수는 점차 증가하여 5개월 차에는 3만 6,000계좌로 급증하였음.<sup>4)</sup>

#### ■ ISA 확대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효과는 대상자 증가와 세제혜택 강화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입기간 확대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세제혜택 강화는 고소득층 및 자산가 계층에 추가적인 가입 및 납입유인이 주어지는 효과가 있음.
  - 현재 ISA의 수익률<sup>5)</sup>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을 통해 연간 1,000만 원 이상씩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짐.
  - 이는 ISA 평균 가입액 117만 원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sup>6)</sup>
- 60세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고령층 중 자산가를 중심으로 ISA 가입이 확대될 것임.
  - 60대 이상 연령 계층은 자산 및 소득 수준의 그룹 내 이질성이 크므로 고령층 내에서도 제도변화의 효과가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임.

3)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4) 김종석 의원실 발표자료(2016. 12. 2).

5) 2016년 10월 31일 현재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에 공개된 193개 “대표 일임형 ISA” 수익률의 단순평균은 1.52%임.

6)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 우리나라 고령층은 자산가 계층과 빈곤층이 혼재되어 빈부격차가 심한 집단임.

- 60세 이상 가구주의 전체 자산에 대한 점유율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음.
  - 반면, 평균소득은 전체 연령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노인빈곤율이 49.6%로 집계하고 있는 OECD 통계와 상통하는 결과임.<sup>7)</sup>
- 따라서 고령층 내에서 빈부격차가 매우 크며, 자산이 많은 고령층은 ISA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빈곤층 고령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고 예상할 수 있음.

〈표 2〉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자산

(단위: 만 원, %)

구분	소득		자산	
	평균소득	점유율	평균자산	점유율
30세 미만	3,407	1.7	7,492	6.0
30~39세	5,079	17.7	18,684	11.1
40~49세	5,674	30.7	26,072	24.0
50~59세	5,964	31.9	34,363	31.2
60세 이상	2,884	18.0	31,257	33.1
전체	4,767	100	28,065	100

자료: 통계청(2015), 가계금융 복지조사 재구성.

■ 현재 연령별 ISA 가입자 수 및 가입액을 살펴봐도 60세 이상 가입자 수는 많지 않으나 금액 점유율 및 인당 가입액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앞서 언급한 자산이 많은 고령자가 ISA 등의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뒷받침하는 자료라 할 수 있음.
  - 전체 ISA 가입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8%에 불과하지만 가입액 비율은 18%로 가입자 수 대비 높은 수준이며, 인당 가입액은 278만 원으로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60세 이상자로 가입자격 확대 시 지금까지 소득이 없어 ISA에 가입하지 못했던 고령층 자산가의 ISA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7) OECD(2016), Statistics, <http://stats.oecd.org/>.

〈표 3〉 연령별 ISA 가입자 수 및 가입액

연령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총계
가입자	인수(명)	5,884	298,787	590,613	634,485	448,812	163,336	1,994,917
	비율	0%	14%	28%	30%	21%	8%	100%
가입액	금액(억 원)	33	2,270	3,897	6,800	7,578	4,552	25,130
	비율	0%	9%	16%	27%	30%	18%	100%
인당 가입액(만 원)		56.1	76.0	66.0	107.2	168.8	278.7	117.3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http://isa.kofia.or.kr/), 신탁형 ISA 9월 말 기준 통계.

■ ISA 도입 목적이 국민의 재산증식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는 경제 활동이 왕성하고 세제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산층<sup>8)</sup>에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재산증식이라는 ISA 도입취지와 세제혜택을 통한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 형성과정에 있는 중산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중산층에 대한 금융투자 및 저축유도 방법으로는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이 ISA에 가입하여 장기간 금융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kiri

8) 정원석·강성호(2015),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지출 가입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pp. 113~142.